

일 주 문



**경기북부 파라미타 청소년협회 발족**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회장 도후 스님은 4월 30일 남양주 봉선사 청풍루에서 경기북부회(지부장 송묵) 발대식을 개최했다.



**임실 제6탄약창 호국장영사 연등축제 개최**  
전북부처님오신날봉축위원회 위원장 원행 스님은 5월 4일 전북 임실 제6탄약창 호국장영사에서 부처님오신날 봉축 연등축제를 개최했다.



**대흥사 제20회 초의문화제 봉행**  
해남 대흥사 주지 범각 스님은 4월 30일 천불전에서 제20회 초의문화제 및 역대조사 다례재를 봉행했다.



**수불 스님, 동국대 제2건학기금 기탁**  
서울 안국선원 수불 스님은 동국대 제2건학기금으로 5억 2000만 원을 2013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기탁하기로 했다.



**동국대 중학개조 기념 학술대회**  
동국대 중학연구소 소장 종호 스님은 5월 30일 동국대 다량관 세미나실에서 '한국선, 어떻게 쓸 것인가'를 주제로 개조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한국선학회, 춘계학술대회**  
한국선학회 회장 송묵 스님은 5월 14일 동국대 다량관세미나실에서 '한국 불교의 수행과 <선원정규>'를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불교학연구회, 춘계학술대회**  
박경준 불교학연구회 회장은 5월 14일 동국대 학술문화관 학명세미나실에서 '업과 윤회'를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대불련, '리더십아카데미' 개최**  
이인근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회장은 5월 21~22일 신정동 국제선센터에서 '리더십아카데미'를 개최한다. (02)732-0239

■前 청불회장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



박재완 前 '청와대 불자 연합회' 회장이 5월 6일 기획재정부 장관에 내정됐다. 박재완 장관 내정자는 1955년 경남 마산 출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 미국 하버드대에서 정책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법명은 '금산(錦山)'이다.

# “복지시설에의 무관심 부끄럽다”

## 자승 스님, 부처님 오신날 맞아 소록도 방문... 불교계 공식 방문으로는 최초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5월 3일 국립소록도병원을 방문해 병원 관계자 및 한센병 환우들을 위로했다. 이날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종선 스님과 前 화엄사 주지 종열 스님, 한국의 선 불교포교단 단장 도제 스님 등이 함께 자리했다.

자승 스님은 “갑자기 소록도를 방문한다고 해 많은 분들을 번거롭게 하고 괜히 방해만 드릴까 걱정했는데,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며 “이번 소록도 방문이 환우들과 병원 관계자 분들에게 작지만 희망과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립소록도병원 박형철 원장은 “원장스님께서 이렇게 직접 방문해 주시니 너무 감사하다. 환자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소록도원생자치회 김명호 회장은 “불교계에서 공식적으로 소록도를 방문해 주신 것은 처음이다. 너무 고맙다”고 뜻을 밝혔다.

자승 스님은 이번 방문에 병원 내 병실을 직접 돌며 중증 환자들을 위로했으며, 약 1000만원 상당의 LCD TV 9대와 쌀 200포대를 전달했다.

자승 스님은 “부끄럽게도 불교계는 다른 이웃종교에 비해 복지시설에 대한 관심이 많이 부족했다. 현재 많은 복지시설에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도 사

각지대에 있는 복지시설에는 불교계의 손길이 미처 닿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님은 또 “170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불교가 이런 일에 소홀히 했다는 것이 부끄럽다. 앞으로 더 관심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승 스님은 자비나눔을 위한 실천방안으로 취임 이후 매월 한두 차례 종교를 불문하고 복지시설을 방문해 왔다.

스님은 소록도 성당 서무원 신부의 안내로 소록도 성당에 들러 참배를 한 뒤, 출입이 통제돼 있던 마을을 둘러봤다. 이어 소록도 중앙공원 산책로를 비롯해 한센병 환자들을 소록도에 강제 수용해 학대를 일삼았던 감시실과 감금실 등을 방문했다.

한센인들은 일제강점기에 강제로 소록도에 수용돼, 강제노역은 물론 불임수술 등으로 인권을 짓밟았으며, 심지어 일명 ‘물방’이라는 곳에 가둬져 살해를 당하기도 했다. 물방은 문턱이 굉장히 높고 방에 고의로 물을 채워 넣은 구조로, 환자들을 하루라도 빨리 죽이기 위해 고안된 방이다. 물방에 갇힌 환자들은 겨울이 되면 얼음이 얼어붙어 얼어 죽기도 했다.

현재 소록도에 있는 한센인들은 평균연령이 73세로 고령 환자가 대부분이다. 보통 일반인 95%는 나병균에 대한 항체를 갖고 있으며, 소록도 내



자승 스님이 소록도를 방문해 한센병 환우들을 위로했다.

환자들 역시 정기적으로 치료 및 관리를 받기 때문에 전염력이 없다. 중증환자를 제외한 한센인들은 비환자들과 마찬가지로 마을에서 일상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자승 스님은 “앞으로 한센인에 대한 홍보가 잘 이뤄져, 일반인들이 갖는 한센인에 대한 오해와 편견들이 많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승 스님은 이날 종선 스님에게 “중앙승가대 학인스님들을 비롯해 불자들이 정기적으로 소록도에 방문해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명절이나 동짓날에는 팔각 공양 등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전했다. 스님은 “기회가 되면 2박3일 정도 머무르면서 봉사활동을 직접 하겠다”고 뜻을 밝혔다. 이은정 기자

## “불교계 오해 푸는데 정부 정성 부족했다”

### 정병국 문광부 장관, 종교차별금지법 등 도입 추진



조계종이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정부·여당 관계자의 사찰 출입금지 방침을 철회한 가운데,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사진)이 “정부가 불교계 갈등과 관련해 충분한 소통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5월 4일 불교계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주무장관으로서 앞으로 예산과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더 이상 이런 오해가 빚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정 장관은 불교계의 ‘정부·여당의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이 전박하다’는 지적에 “정부·여당의 노력이 부족했던 측면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최근 정부·여당이 전통문화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고 관련법 및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

다”고 설명했다. 정병국 장관은 “특정종교인들의 불교편향을 방지하기 위해 종교차별금지법 도입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일부 공직자들의 종교편향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문광부 산하에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종교편향 예방 교육을 실시 중이다.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템플스테이 사업이 특정종교 지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템플스테이는 2002년 한일월드컵 당시 외국인 숙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범 실시됐고, 외국인의 호평이 이어지면서 정부차원에서 예산을 늘려 사업을 확대했다는 것.

정병국 장관은 “템플스테이는 정부 차원에서 관광상품으로 제안돼 만들어졌다. 종교적 관점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며 “템플스테이 업무를 중무실에서 관여해 개신교 등이 특정종교 지원이라 지적하는 불필요한 오해가 있었다. 소관 업무를 중무실에서 관공국으로 이관하는 작업이 진행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조동섭 기자

## 사찰 건폐율 상향, 보전부담금은 줄인다

### 한나라당 전통문화발전특위, 사찰 등 규제 대폭 완화

한나라당이 사찰 등의 건폐율 완화와 증·개축 허용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전통문화재 건물 규제 완화책을 내놓았다.

한나라당 전통문화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전제희)는 “현행 20% 이하로 제한(국토이용법 제77조)된 전통문화 건축물의 건폐율을 30% 이

하로 완화하고, 개발제한구역 등의 전통사찰 및 문화재의 증·개축 허용범위를 확대하겠다”고 5월 2일 밝혔다.

이에 대해 조계종 대변인 정만 스님(기회실장)은 4일 논평을 통해 “최근 정부·여당 내에서 전통문화에 대한 국가적 책무를 인식하고 새롭게 접근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점은 때늦은 감이 있으나 다행스러운 변화의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조동섭 기자

## 조계종 정치인 불초청 입장 환영

###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가 4월 27일 열린 자유선진당 최고위원회에서 “조계종의 정치인 불초청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회창 대표는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조계종이 발표한 정치인 불초청 입장은 참으로 오랜 만에 들어보는 참신하고 반가운 소식이다. 조계



종의 이같은 참신한 행동을 다른 종교에서도 본받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신자 아닌 정치인이 정치적 이점을 노리고 참여하는 것은 건전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동섭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제11교구본사

# 불국사

佛紀 2555年

## 주 지 성 타

관장	종상	교무	정수
학장	덕민	재무	종천
선원장	종우	사회	종민
총무	종천	포교	성요
기획	정문	호법	각천
		신도회장	변영우

부설기관

- 분당 포교당 석가사
- 불국 성림원(노인요양시설)
- 불국사 문화회관
- 불국 유치원
- 성림 어린이집
- 경주 장애인 종합복지관

## 대 중 일 동

